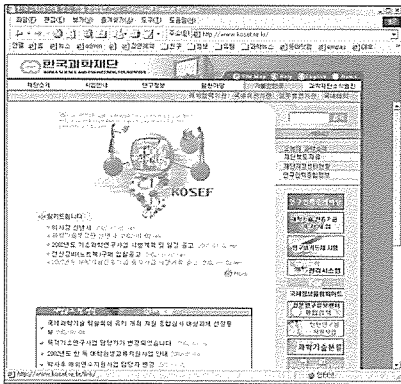


# 국내외 과학기술 *Internet Site*

## 한국과학재단

http://www.kosef.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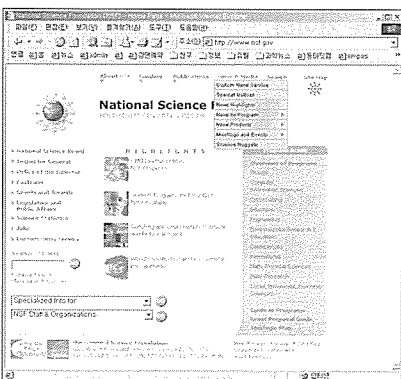
1977년에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교육의 진흥과 과학기술 연구능력 배양, 국제교류 증진을 통해 국내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주로 국내 자연계 대학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연구 등 과제를 선별해 연구

비를 지원하고, 대학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강화하며, 대학 연구자들의 국내외 각종 학술활동과 국제협력활동, 산학협력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외 과학자 유치, 각종 학술회의 개최,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참가, 한국 과학상·공학상 시상 등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는 크게 재단에 대한 설립 취지 등을 알 수 있는 '재단 소개',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업안내', 연구결과 및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정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마당', 국내외 과학관련 지원기관과 연구기관을 소개하는 '기쁜만한 곳', 그리고 매월 과학재단의 다양한 소식과 과학계 흐름을 소개하는 '과학재단소식웹진'의

로 나뉘어 구성돼 있다. 이중 과학재단 소식웹진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이나 과학계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담고 있는 '과학논단', 한국과학재단의 소식을 전하는 'KOSF 뉴스', 해외의 과학기술 및 기초과학 등의 연구동향 등을 분석해서 전하는 '조사 분석/기고', 최첨단 연구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연구현장 탐방' 등이 서비스 되고 있다. 과학재단 사이트에서 유용한 서비스는 메일링리스트. e메일주소를 등록하면 과학재단의 사업관련 공지사항과 오늘의 과학소식, 과학재단소식지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매일 서비스하고 있는 오늘의 과학소식은 일간지나 인터넷에 소개된 모든 과학관련 기사를 링크시켜줘 과학정보 뿐 아니라 과학계 흐름을 아는데 도움을 준다.

## 미 국립과학재단

http://www.nsf.gov




1950년에 설립된 미 국립과학재단(NSF)은 미국 전체 연구개발 예산에서 4%, 기초연구에서 15% 정도를 차지한다. 미국의 연구개발 예산이 미국을 제외한 G7국가(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의 전체

연구개발 예산과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NSF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특히 NSF의 연구개발 예산 중 80%는 기초연구에 지원되고 있다. MRI와 관련된 첨단연구, 레이저, 도플러 레이더, CAD/CAM에 관한 연구, 인터넷을 일반화시킨 최초의 웹브라우저 모자이크 개발, 오존층의 파괴에 대한 과학적 발견 등 수많은 과학적인 발전이 NSF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NSF의 지향성은 에너지, 해양, 생명의학, 농업, 우주와 같이 특정한 분야를 지원하는 다른 기관과 달리 모든 연구분야와 학제간 연구를 지원하며, 새로운 분야와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NSF의 홈페이지는 생각보다 매우

단정하고 단순한 모양이지만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이트맵을 참조하지 않고는 정리되지 않을 만큼 다양하다.

NSF가 하는 일과 지원하는 프로그램 분야 등을 소개하고 있는 'NSF 소개', 연구비 신청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연구자금',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연구보고서 등을 서비스하는 '간행물', 재단의 세미나, 연구발표 등을 알리는 '뉴스와 미디어', 원하는 내용을 바로 키워드로 찾아보는 '검색' 등이다.

과학통계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2000년까지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朴應緒 (동아사이언스 기자)